

지역 소식통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민관협력 봉사활동 펼쳐

정읍시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최근 '찾아가는 민관협력(기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폐적하고 안전한 해피 커뮤니티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센터는 이날 10개 기업연합 봉사단 70여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북부노인복지관 신내인들 구사동 내석동마을 일원에서 전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 검진과 틀니 살균 세척, 한방 의료 검진, 전기·가스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 가스 중간 밸브와 조정기 등 시설 교체 등 저마다의 분야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행복 에너지 방자'를 운영,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신선한 소고기 육개장과 떡, 과일 등을 대접해 훈훈함을 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서,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부안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희망나무가 꾸기의 일환으로 내 소사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서면 내 소사에서 실시됐다.

이날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및 인성교사 등 10여 명이 함께 한 희망나무가 꾸기는 청소년들이 자연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스님과 차담', '만다라 명상(미술치료)', '물력(심신수련)', '새벽 예불 및 숲길 명상' 등 심신을 치유하고 단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현심 경찰서장은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순조

고창군, 출산장려금 확대 등 13개 사업 조기 완료·19개 사업 정상 추진 중

고창군이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며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물권보전지 실현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의 3대 목표에 따라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23개 사업 32개 세부사업을 분류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자체 점검 결과 출산장려금 확대 등 13개 사업은 조기 완료했고, 나머지 19개 사업도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농가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임대사업장을 추가 건립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실적은 보유 장비 71종 405대 중 208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특히 관리기와 논두렁 조정기가 각각 275대와 179대의 임대실적을 보이며 농업인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을 앞두고 오는 7월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상담실, 다목적강당, 물리치료실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직소천 정비사업 사업비 200억원 확보

부안군 변 신변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에서 벗어나 하천의 패기지역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기능과 지역 발전 전략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되는 융합모형을 찾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에 하천사업 공모를 했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직소천, 이름

다운 금수 변산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정을 수놓다. 기억을 수놓다. 미래를 수놓다.' 등 3개 테마를 잡고 새만금과 합류 되는 직소천이 2023년 세계잡버리 유자시 세계인에 게 아름다운 부안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될 최적에 장소라는 점을 부각시켜 발표함으로써 226개 기초지자체 중 공모사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직소천 지방하천은 전체길이 3.28km로 주요사업으로는 제방 및 호안, 교

량, 하상유지시설,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자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된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새만금과 2023년 세계잡버리가 개최 되는 핵심거점 지역으로써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인에 으면 오복을 가득 받는다"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세계유산탐방체험 동호회,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고창군청 산하 세계유산탐방체험 동호회(회장 안승현 고창군 생물권보전소장)가 지난 27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내 세계유산 탐방에 나섰다.

고창군 공무원과 군민 등 50여명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체함을 통해 회원들이 고창군의 아름다운 매력을 더욱 잘 아는 계기로 삼고 각자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로 역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고창군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에서 회원들은 고

창읍성, 운곡사사르습지, 고창갯벌,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등을 돌아보며 생물권보전지역 5대 핵심구역의 가치를 몸소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7' 성료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 지역의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들어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과학 탐사·참여활동 바이오블리츠 코리아(BioBlitz Korea) 2017 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입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바이오블리츠'는 세계적인 생물종 조사대회로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이라고도 불린다. 탐사와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전문가와 함께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자연과 환경 보전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생명의 숲을 비롯한 전북 지역 환경 및 생태활동 단체들이 동참해 일반 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특히, 전라도 지역의 생태탐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리게 됐으며 박우정 군수와 신원섭 산림청장,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박광우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전문가와 참가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7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운산 생태숲 일대 생물탐사와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알아보는 토크교육, 재미있는 우리 꽃 이야기, 각자 찾아온 생물종 이야기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아간 곤충채집 등의 활동에도 나섰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를 통해 자연생태의 보물을 직접 찾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에너지 효율 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정읍시가 2017 에너지 효율 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유일 에너지 분야 일간 종합경제지인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쓴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상으로 꼽힌다.

이번 수상은 고창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섰던 정읍시 에너지 구조개선 등에 힘쓴 결실로 평가된다.

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보급 정책에 맞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등을 시정 제2군 옥상 등 지역 내 관공서 87개소에 설치했다.

또 시 분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에너지 등으로 전면 교체해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샘골터널과 구룡터널 LED조명등 300여개와 도시 가로등 2500여개를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매년 1000등씩 추가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시설 확충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으로 농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47억25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구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17억원을 들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토양 개량제 지원에 11억원을 투입한다.

또 10억원을 들여 취약한 친환경 잡

곡 생산 유통 기반을 개선하고, 유기농업자 등 친환경 농가제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금으로 1억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주력, 친환경 농업 선진지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bear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ad highlights the wine's quality and offers various gift sets.